

# 고신총회 소개와 전망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고신총회 소개와 전망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고신총회 소개와 전망

발행일	2014년 4월 16일
발행인	주준태 목사
편집인	구자우 목사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02)592-0986
주 소	137-80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5 (반포동) 고신총회회관
디자인	노성일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출판물입니다.  
기록된 형태의 발행인의 허락이 없이는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차례 Contents

- 4 고신총회 비전
- 5 고신총회 로고
- 6 고신총회 조직도
- 8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
- 20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
- 26 한국장로교회와 고신의 전통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제63회 총회의 표제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 (롬 1:16)

The Path of the Gospel, Walking together in harmony with Intergeneration

## 61주년 이후의 과제(2013~)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

To recover and return to the faith and life worthy of the Gospel

## 고신 성도들의 신앙생활 수칙

The five practices of Christian life as Kosin believers

**개인** 규모 있는 개인경건생활과 건강한 교회생활에 힘쓴다.

Personal, the believer works hard to maintai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 healthy spiritual life at church and work.

**가정**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아곱의 식탁)<sup>1)</sup>로 신앙의 명가를 세운다.

Family, the believer establishes the family's faith(Jacob's Table) as the whole household worships together.

**교회**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사랑의 실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The church, the believer becomes the salt and the light in the world through evangelism and community service that is rooted in love.

**총회** 총회본부의 열 개 부서<sup>2)</sup>와 학교법인 세 기관<sup>3)</sup>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한다.

General Assembly, the believer prays and supports the 10 departments of headquarter within the General Assembly and 3 educational school corporations.

**세상** 남북의 평화통일과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해 헌신한다.

The world, the believer devotes time in the construction of the Reformed Church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1) 아곱의 식탁 : 정통파 유대인의 안식일 식탁예배에서 부모의 축복, 말씀의 암송을 응용하여 송도제일교회가 제정한 온가족 식탁예배

2) 총회본부 열 개 부서 : 행정지원실, 재무실, 총회교육원, 총회출판국, 학생신앙운동(SFC), 유사기독교상담소, 고신언론사, 총회유지재단, 총회은급재단, 세계선교센터

3) 학교법인 세 기관 :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 컨셉

고신총회의 기초인 성경(책)과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조합하여 이상적인 기독교 교단상(敎團像)과 새롭게 비상한다는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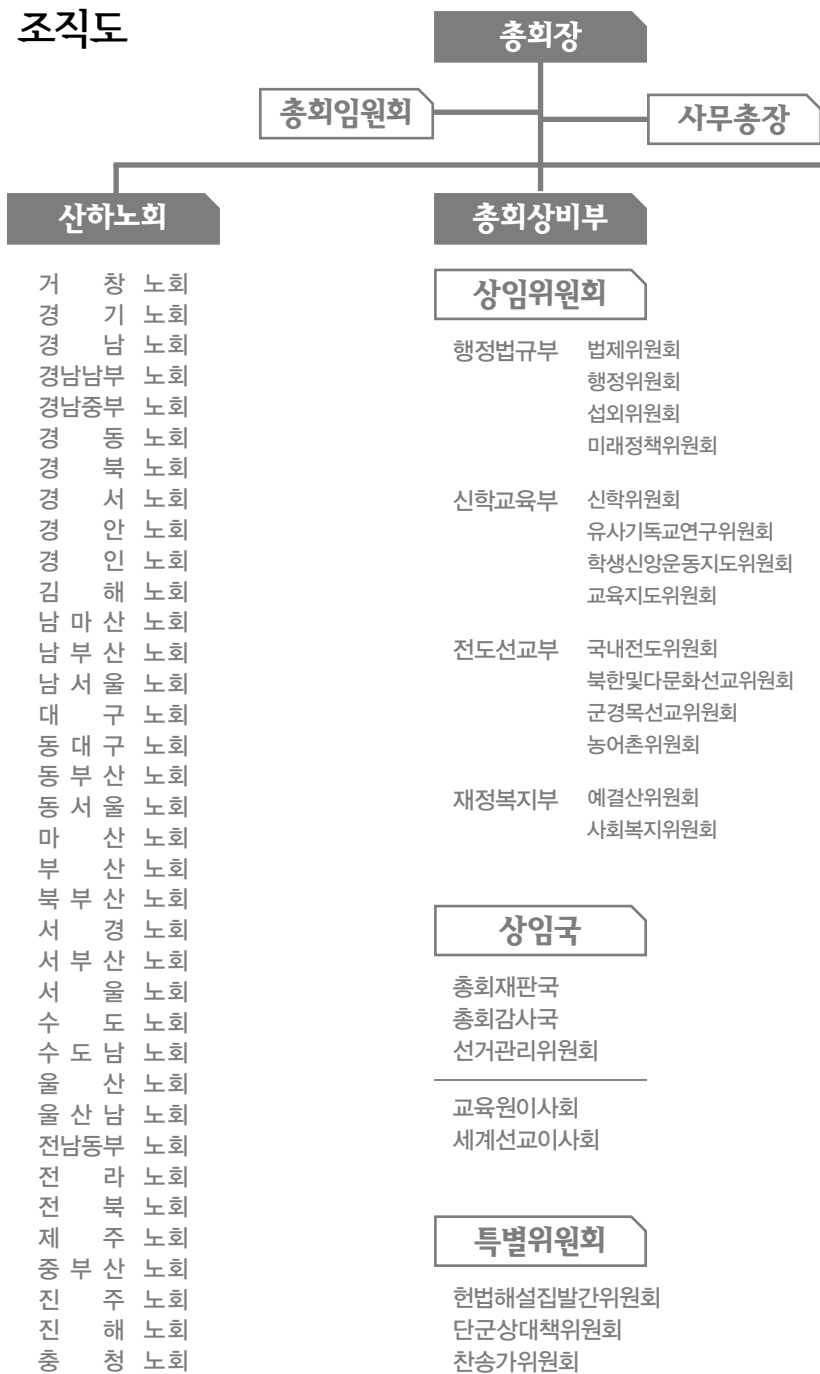
### 의미

우리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고신총회의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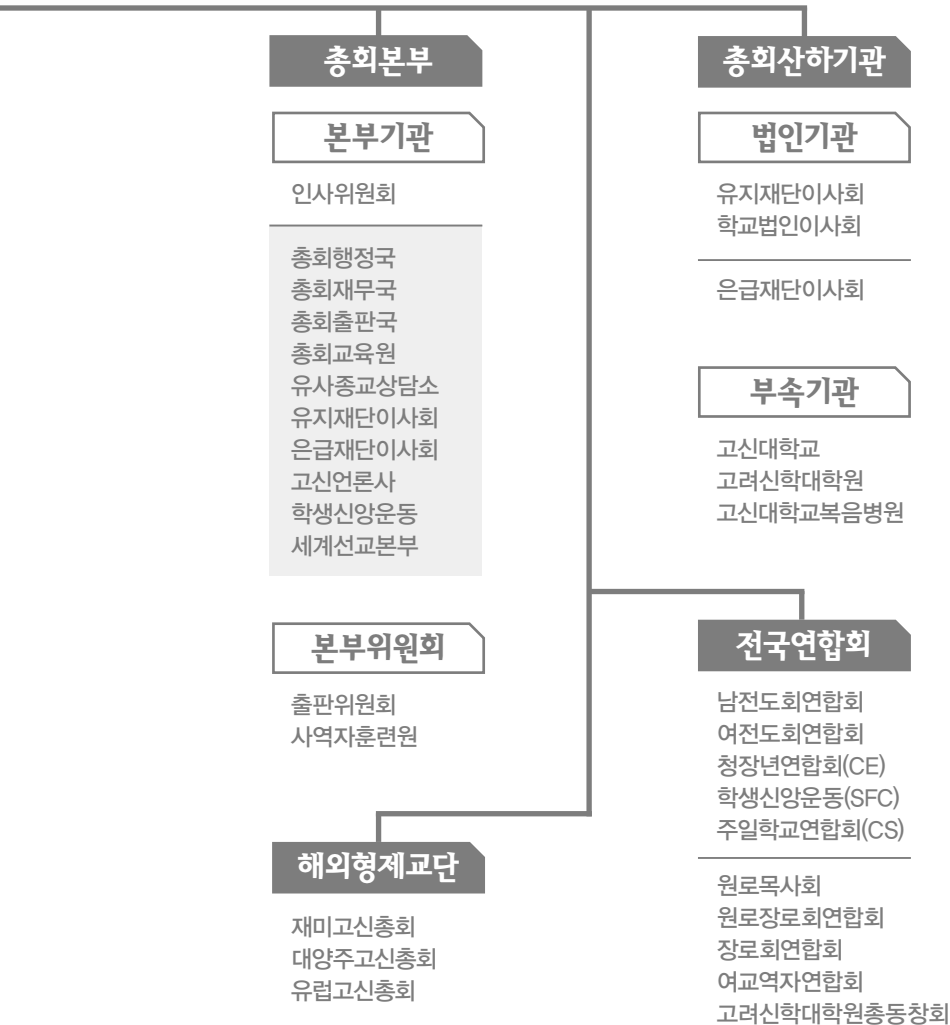
### 색상

컬러는 청색계열로 청교도를 상징하는 전통 색상으로 믿음과 평화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고신총회를 향해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빛을 나타내고 있다.

# 고신총회 조직도







#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 (주제설교)

주준태 목사 (제63회 총회장)

로마서 1:16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롬 1:16) }

##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

The Path of the Gospel, Walking together in harmony with Intergeneration

주 안에서 존경하는 목사·장로 총대 여러분, 저는 제63회 총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작년 6월, 고신총회 설립60주년 기념대회와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00주년 기념대회를 치렀습니다. 정확하게 고신 61주년이자 예장 101주년이며 제63회 총회를 맞이하는 우리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음의 길’을 분명히 제시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 topic of the 63rd General Assembly was Let Us Walk Together in the Path of the Gospel. Last June, Kosin General Assembly commemorated its 60th anniversary while the KPC General Assembly commemorated its 100th in September. This year marks the 61st year of Kosin General Assembly and 101th year of the KPC General Assembly. As we continue forward with the 63rd General Assembly meeting, there are specific responsibilities we must carry out.

## 복음의 길 1 : 역사

### The Path of the Gospel 1: History

1) 복음의 길,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고전15: 1-4) 길이며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Path of Gospel is that Jesus' disciples followed the path of the same gospel which Christ Jesus paved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sup>(1 cor 15: 1- 4)</sup>. Paul declares that it is the gospel of Christ that ensures salvation and demonstrates God's power.

2)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이 복음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비록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히 11:4) 길입니다. 이 길을 아벨이 걸었고 아브라함과 바울이 걸었으며 또 개척가 루터와 칼빈이 걸었습니다.

Our fathers in the faith were not ashamed of the path they walked even at the cost of their lives. Although Abel, Abraham, Martin Luther, and Calvin have passed away, their faithfulness continues to encourage us as we walk in the path of the gospel. (Heb 11: 4)

3) 이 길은 130년 전 선교사들을 통해 이곳 우리에게 전파된 길이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입니다. 또한, 일제의 강점 아래 신사참배를 반대하며 박해와 투옥과 죽음을 무릅썼던 주남선, 한상동 목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일사각오로 이 길을 걸었고, 한부선 선교사는 만주에서 조선족 형제들과 함께 옥에 갇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옥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었던 손양원 목사는 이 길을 걷기 위해 날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자냐?'라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Through past missionaries, our ancestors were introduced to the gospel 130 years ago and continued to walk the path of faith. Eve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Reverend Nam-Sun Ju and Sang-Dong Han refused to enshrine other gods; instead, they persistently walked down the path of the gospel. Reverend Ki-Chul Ju gave up his life to maintain his faith to God, and Missionary Bu-sun Han praised God even while imprisoned with fellow believers. During the Korean War, Reverend Yang-Won Son lost his two sons to the North Koreans, yet refused to cease to worship God.

4) 그런데 해방 후 우리 선배들은 복음의 길을 걷기를 거부하고 주저하는 자들의 부당한 교권에 의해 1952년 9월, 예장총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과거 히틀러를 지지하던 목사들을 최소 5년간 교회에서 쫓아냈던 독일교회처럼 시벌을 주장하지도 않고, 다만 자숙하는 회개를 하자고 4년간 계속 촉구했을 뿐인데 축출당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고신교회는 개혁신앙과 개혁신학의 기치 아래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그리고 회개운동을 주도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고신의 길은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However, in September of 1952, these ministers who refused to enshrine other gods were removed from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In past WWII Germany, the pastors who supported Hitler were removed from their General Assembly for 5 years. However, the pastors in Korea who enshrined Japanese gods were instructed to pray and repent for a period of 4 years. In a dramatic turn of events, in September of 1952, those ministers who refused to enshrine the Japanese gods were removed from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Since then, Kosin has been part of a movement that calls for an authentic life of faith and purity under the principles of Reformed theology and Reformed faith.

5)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고신교회가 복음의 길을 항상 옳게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때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의 길을 추구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faith of Kosin General Assembly, people have made mistakes and have been criticized by others due to human deficiencies and vulnerabilities. Thus, even though we have been obediently walking in the path of the gospel, no one can boast about where we are now without Christ's love, grace, and provision.

## 복음의 길 2 : 과제

### The Path of the Gospel 2 : Responsibility

1)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단과 안티 기독교 세력의 공격이 있고, 안으로는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같은 신학적 혼란과 사역 방향의 혼미, 성경의 권위와 영감설에 대한 도전, 다음 세대의 교리적 무지로 인한 취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신자와 교회를 변질시키는 쾌락주의와 물질만능주의, 세상 명예의 추구, 부도덕한 인격과 삶, 교권주의와 정치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Today, Korean churches face many trials and challenges. There are cults and anti-Christian forces as well as religious pluralism and relativism that distort the authority and integrity of the Bible. These oppositions are against our goal of understanding the direction of ministry for the next generation. Moreover, hedonism and materialism deteriorate contemporary beliefs while the churches are becoming more political. Similarly, churches idolize the world and compromise to its value system. However, the time has come to walk the path of the true gospel.

2) 고신교회의 지도자이신 총대 여러분, 여러분은 고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며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이 길을 제시해야 할 엄숙한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적 신앙을 먼저 강조한 후 복음적 삶에 대하여 가르친 것처럼, 복음의 길을 물려받은 고신교회의 정체성과 시대적 사명은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신의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고신교회가 계속 이 길을 걸을 때, 가장 고신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공교회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복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갑시다.

To the leaders of Kosin Churches, it is our solemn duty, as followers of Christ, to maintain the purity of the gospel and spread the eternal truth among churches in Korea and throughout all nations. Just as the book of Romans emphasizes on inheriting the evangelical faith and then caring out the belief, the mission of our

Kosin churches is to recover and return to the faith and life worthy of the gospel. Thus, the path of Kosin is the path of the gospel. It is only when Kosin churches walk in this righteous path that we have done our universal responsibility. Let us have this assurance and walk together mightily in the righteous path of God.

### 3) 복음적 신앙이란

What is "evangelical faith"?

첫째,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칼빈주의 원리의 최대 표현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이 그것을 반영합니다(롬 9:11).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롬 11:36)이 곧 하나님의 영광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삶(벧전 2:9)입니다.

First, it is a God-centered faith. This Calvinist principle emphasizes God's absolute sovereignty(Romans 9:11). I firmly believe that God is glorified when everything comes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Romans 11:36). Therefore, God has chosen us and holds a special place so that we may declare His kingship(1 Peter 2:9).

둘째,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법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오직 말씀에 따라 살고 죽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비성경적, 비개혁주의적 신학,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 신학, 혼합주의와 토착화 신학을 배격합니다(시 119:105, 딤후 3:15-17).

Second, it is a Bible-centered faith. God calls us to put faith in His Word as the only rule and guide of our lives. When He commands us to go, we go; when He commands us to leave, we leave. We only live and die according to the Word of faith. Therefore, we must reject all kinds of non-biblical, non-Reformed theology, theology of liberalism and neo- orthodoxy, as well as syncretism and rejecting of the theology of indigenization(Psalm 119:105, 2 Tim 3:15-17).

셋째,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칼빈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무대라고 말했습니다(엡 1:23). 우리는 오직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과 영적 왕권을 믿습니다. 그 영적 통치권이 교회의 올바른 말씀의 전파, 정당한 성례의 집행, 신실한 권징의 실행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Third, it is a church-centered faith. Calvin said that the church is God's center stage in His Kingdom work(Ephesians 1:23).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We also believe that spiritual kingship of Christ is the universal kingship. Such spiritual sovereignty appears through the church's rightful bible proclamation, just execution of the sacraments, and faithful execution of church discipline.

4) 이런 복음적 신앙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빌 1:27)이 따라야 합니다. 복음적 삶이란

This evangelical faith is demonstrated by a reasonable lifestyle(Philippians 1:27). Thus, an evangelical life is described as the following:

첫째, 개인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가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과 신앙적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록하고 정결한 청교도적 생활을 추구합니다. 고신교회가 추구해온 생활의 순결이라는 명제 하에 세상의 쾌락에 오염된 세속문화를 배격하고, 주일성수와 십일조 봉헌 등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 철저히 전수합니다(롬 12:1-2).

First, the evangelical life starts from a personal recovery in faith. Each of us needs to restore his life to the pursuit of a holy and clean conscience before God(Coram Deo). Just as the Kosin tradition pursues the purity of the church and life, let us reject the contaminated notions of the secular world; instead, let us continue to be dedicated to our traditional and biblical values--such as tithing and keeping the Holy Sabbath-- and pass it down to the next generation(Romans 12:1-2).

둘째, 교회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중심과제는 무엇보다 예배에 있으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의 바른 선포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지켜온 공적 예배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행 2:46, 히 10:25).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교회의 본래적 사명인 예배와 교육, 전도와 선교, 나눔과 섬김의 과제를 충실히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서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Second, the evangelical life restores the church. The central task of the church is in worship and in proclaiming the worship-centered gospel. Therefore, we must actively defend and pursue traditional worship and prayer<sup>(Acts 2:46, Hebrew 10:25)</sup>. As the body of Christ, let us seek to restore and overcome divisions and conflicts and maintain a righteous order by worshipping and gaining His knowledge, evangelizing and engaging in missions, and sharing and serving faithfully.

셋째, 사회의 회복입니다. 개인의 빛과 소금 된 삶, 교회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우리가 속한 사회의 거룩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본을 통하여 변화를 도모합니다.

Third, the evangelical life recovers the community. As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let us seek after a holy restoration for the community in which we live and emit God's love through our service and love. We must emulate Christ by example especially in the field of politics and the rapidly changing culture and education.

넷째, 북한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민족의 거룩한 회복을 도모합니다. 과거의 우상숭배와 신사참배, 남북의 갈등과 분열, 남북한 지도자들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가집니다.

Fourth, the evangelical life unifies Korean believers around the world including North Korea and Korean Diaspora. Although there were past conflicts within our people shown in the Korean War and various religious conflicts, the leaders must repent, pray, and promote a vision of a kingdom of priests that God will unify North and South Korea for His glory.

다섯째, 복음의 길을 걸으며 민족의 회복을 통해 세계 열방의 회복을 꿈꿉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비판론을 가지면서도 제사장적 책임론의 견지에서 우리 민족과 열방과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는 꿈을 가집니다.

Fifth, the evangelical life emphasizes walking in the path of the gospel. As



Korean churches pray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evangelical believer yearns for the recovery of all nations a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of faith. A person living the evangelical life, even though with prophetic pessimism, seeks the expansion of God's kingdom and prays that His glory will prevail across the earth as people preach and believe the gospel of Jesus Christ.

### **복음의 길 3 : 신앙생활의 다섯 가지 수칙**

#### **The Path of the Gospel 3: Five Practices of Faith**

지금까지 말씀 드린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n summary, our evangelical faith and evangelical life will ultimately restore our lives in the following areas:

첫째, 규모 있는 개인경건생활과 건강한 교회생활에 힘쓴다(개인).

First, the believer works hard to maintain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and a healthy spiritual life at church and work (personal).

둘째,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야곱의 식탁)로 신앙의 명가를 세운다(가정).

Second, the believer establishes the family's faith(Jacob's Table) as the whole household worships together (family).

셋째,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사랑의 실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교회).

Third, the believer becomes the salt and the light in the world through evangelism and community service that is rooted in love (the church).

넷째, 총회본부의 열 개 부서와 학교법인 세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한다(총회).

Fourth, the believer prays and supports the 10 departments of headquarter within the General Assembly and 3 educational school corporations. (General Assembly).

다섯째, 남북의 평화통일과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해 헌신한다(세상).

Fifth, the believer devotes time in the construction of the Reformed Church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world)

저는 이것을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이 지킬 다섯 가지 신앙생활의 수칙으로 삼고 싶습니다.

I would like to offer these as the five rules of Christian life as Kosin believers.

#### **복음의 길 4 : 복음의 길, 3세대의 따뜻한 동행**

**The Path of the Gospel 4: The Path of the Gospel, Walking together in harmony with intergeneration.**

또한 이 복음의 길은 3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Also, this evangelical path has to be a beautiful journey that the intergeneration seek together.

1) 여기서 ‘3세대’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ere, the term " intergeneration " holds two meanings.

첫째,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는 고신의 세 번째 세대입니다. 제1세대인 처음 30년은 고신교회의 설립기였습니다. 이 세대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중 겪은 수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길을 걸으며 고신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제2세대인 다음 30년은 고신교회의 성장기면서 동시에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금번 제63회 총회를 맞는 우리는 제3세대의 시작으로 지난 두 세대가 걸어온 길에 대하여 지나친 비판은 지양하고 도리어 존중하며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을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First, we are now the “Third Generation” of the Kosin General Assembly. The first generation, or the first 30 years of Kosin history, was the time of our establishment. Although the generation Kosin members faced many trials during the

colonial period under Japanese rule and the Korean War, faithful believers paved the path of the gospel and laid the foundation of Kosin General Assembly. The second generation was the next 30 years, a time in which we experienced both growth and conflicts. As we commemorate the 63rd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ssembly, we have embarked on our journey as the third generation. As we do so, we must reflect and respect what the people in the past have done and move forward.

둘째, ‘3세대’라는 말은 구성원으로 세 세대, 즉 삼대(三代)를 뜻합니다. 이 복음의 길은 어느 세대도 예외가 될 수 없고, 물려서거나 배제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 신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대, 교회의 대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라는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가정과 교회에서 1세대, 2세대, 3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길이며 특히, 자녀들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세대통합예배와 가정예배(아침의 식탁)로부터 3세대의 따뜻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Intergeneration” could also refer to the family structure, in which intergeneration reside together. As we experience longer life expectancy and lower birth rates, we wonder how we are going to pass on our beliefs to the children. As all intergeneration reside together in the church and home, let us walk the path of the gospel together by worshipping in the household.

## 2) 3세대의 따뜻한 동행이란

What does it mean to be on a journey together in harmony as the “Intergeneration”?

첫째,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에 있습니다. 성역화 된 기관과 제도는 더 빨리 부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총회를 구성하는 협력위원회 총회기간 동안 상임위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규칙(총회규칙 제12조 12항)을 명심하고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고후 12:18)로 따뜻하게 동행합니다. 이 복음의 길은 목사와 장로, 직분자와 교인,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의 길입니다. 고신교회 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선교사, 은퇴교역자 모두가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미자립교

회의 자립과 교역자들의 최저생계비 지원보장제도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First, we must establish a proper checks and balances system in the Presbyterian Church. Let us not forget that an extremely authoritative institution will quickly become corrupt. We must keep in mind that the General Assembly Standing Cooperation Committee has the right to equal with the standing committee in session<sup>(General Assembly Rule Chapter 12 Section 12)</sup> and walk together with the same spirit and same support<sup>(2 cor 12: 18)</sup>. The way of this ministry is one in which ministers, elders, and members walk along the same path in unison. We must walk in unison whether we belong to a small church, big church, new church, rural church, are missionaries or are a retired minister. It is my hope that the General Assembly this year will be engaged in lively discussions about the need of supporting the minimum wages of ministers and quick changes for self-supporting of the non self - supporting church. .

둘째, 총회 산하교회와 기관, 특히 학교법인의 세 기관, 고신대·신대원·복음병원 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알력과 반목이 있다면 이를 지양하고 감을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동행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총회도 세 기관 모두를 함께 품고 기도하며 후원합시다.

Second, I would like to encourage the General Assembly affiliated churches and organizations, in particular the Kosin University, Kosin University Gospel Hospital and Korea Theological Seminary to unify together than ever before. Let us avoid any friction and antagonism. Let us pray for each of the three organizations.

셋째, 복음의 길은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고수하면서도 한국 교회 정통교단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연합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나아가 해외자매 교단과 ICRC와 같은 세계개척교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경주에 동참합시다.

Third, the path of the Gospel is the only way to pursue the uniqueness of the Gospel within a society with diverse religions. At the same time, it is the way to have an active interaction and a united relationship with the traditional denominations in Korea. Furthermore, let us run this journey for God's kingdom together with the

Korean churches in other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ICRC.

빛쬤, 소외된 이웃(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미혼모 등)과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층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 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합시다(행 20:35).

Fourth, let us serve the neighbors who are usually marginalized such as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teenagers without parents, single mothers, refugees, foreign workers, and multicultural families. Let us strive to help them and walk the path of God with them. Let us follow the example of Paul in service and remember that there is more blessing that comes with giving than receiving(Acts 20:35).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음의 길은 이 시대 고신교회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 3세대가 걷는 이 복음의 길은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길을 우리 3세대가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따뜻하게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합시다(에 5:21). 우리 총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송영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롬 16:26-27). 할렐루야!

Dear fellow servants of the Lord, the path of the gospel is the way of salvation in which Kosin Churches need to walk as it is the eternal gateway to the abundant life. The path that we have been walking for intergeneration is not one that we are ashamed of. As we walk this path with the Spirit, let us experience God's new mercy and grace(Lam. 5:21). I pray that doxology of Paul will reside in our assembly. To the only wise God, who has made his command known through prophetic writings, be glory forever through Jesus Christ!(Rom. 16:26-17). Hallelujah!

## 복음적 신앙과

##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 (헌정설교)

주준태 목사 (제63회 총회장)

빌립보서 1:27

{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1:27) }

제63회 총회에서 61주년 역사의 고신교단은 101주년 역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원뿌리에서 나왔고, 결가 지나 줄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신교회가 일제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름으로써 한국교회 최초 프로테스탄트의 역할을 용기 있게 수행한 것은 비단 우리만의 공지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공동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신앙적 저항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61주년을 맞이한 고신교회가 한국장로교 5대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자산을 독점하지 않고 벌써 한국교회 전체에 헌정했습니다.

개혁주의란 종교개혁 이후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은혜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의 신앙노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길이 곧 복음의 길입니다. 복음에는 언약과 전도의 개념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

다. Back to the Gospel, 복음이 곧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막 1:15). 복음이 개혁교회의 최고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고신교단의 이념은 순교정신의 계승이나 한국교회의 갱신을 넘어 개혁신앙의 본질인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To recover and return to the faith and life worthy of the Gospel’ 이야말로 지금까지 주장해온 고신교회의 정체성을 돋보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고신과 복음의 기막힌 조합,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신학적 첫째 이유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개혁자들이 요구한 개혁의 핵심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의 창조와 건설이 아니라 성경적인 옛것으로의 재건과 회복입니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며 개혁의 태도는 혁신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신학적 둘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성취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작가도 감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살아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 접근하고 침노하는 것입니다(마 11:12, 창 4:25-26, 시 57:2).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되고(고전 9:1, 요 8:36, 갈 5:1,3, 벡전 2:16), 충실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롬 15:16, 골 1:23).

복음적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요 6:29)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고전 1:18)가 기독교의 본질이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딤후 1:10-11). 복음적 삶이란 신행일치의 삶입니다. 빌 1:27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고, 고전 9:23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적 삶의 실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롬 14:23에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약 4:17에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복음적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신자의 허물이요 허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롬 5:8-10, 고전 10:5-12).

혹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가운데 고신교회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것은 ‘큰 것에 대한 욕망’이며, 그 한 표출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한기총에서 탈퇴하지 못한 까닭이 아니냐? 고 묻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5%인 고신교회가 그렇게 작습니까? 합동과 통합교단은 고신의 5배, 6배 규모가 되지만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가 가장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가정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강소국이 있고, 대학도 색깔 있는 특성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고를 초월한 영적 의연함이 고신의 정신입니다(서울신광교회 손승호 목사의 안산육도교회 취임). **우리는 태생적으로, 역사적으로 한국 개신교 정통 보수교단의 보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이 땅에서 여전히 고신이 되어야 할 이유가 ‘이 땅의 어떤 다른 교단보다 선배들이 전수해준 신앙과 영성을 지금, 여기서 잘 살아내는 데 있다’고 주장하는데 글로벌 리그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비교하여 더 낮고 신령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합니까?(약 3:14). 문제만 생기면 고신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표시해야 합니까? 세상 끝 날까지 늘 발생할 보편적인 죄성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민 20:10-12). 고신교회는 한국에서 선교율과 헌금율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건강한 교단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겸비해야 매력적인 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팎으로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꽃으로 맞아도 아픔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받은 고신이란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신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도 우리 모두는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



요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을 받은 건강한 한국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고신의 길은 복음의 길이었고, 지금도 복음의 길입니다. 고신교회가 계속 복음의 길을 걷는 이상 고신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며 세계적일 수 있다고 믿읍시다. 지금까지 고신교회가 늘 회개의 영성을 추구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일치의 영성과 세계화의 영성이 요청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길은 첫째, 목사와 장로, 직분자와 교인,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의 길입니다. 고신교회 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선교사, 은퇴교역자 모두가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의 길입니다. 둘째,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 특히 학교법인의 세 기관이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동행하는 길입니다. 우리 총회가 학교법인을 통해 경영하고 있는 세 기관인 고신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 온전한 회복과 기독교 명품대학의 건설을, 신대원은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복음병원은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전인치유의 요람을 각각 표방하며 복음적 정신을 가지고 복음의 길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 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대구 공청회(13.12.17)에서 저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만들어 낸 최고의 인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원칙만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는 시대와 전통을 넘어선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깊은 회개와 단호한 믿음 그리고 유연성, 방어적인 논리도 있고 도전적인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총회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오늘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한 번 더 희생을 각오하고 큰 틀을 정해주면, 10년 전과 달리 세 기관 스스로 격량을 헤쳐나갈 넉넉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동행이 곧 희생 아닙니까?(대구말씀교회의 1억 원 헌금). 진리와 의를 위한 희생이 곧 고신의 정신입니다.

알베르 까뮈(Albert Camus, 1913~1959)는 노벨문학상 수락연설에서 ‘정의와 나의 어머니

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머니를 택하겠다'며 막연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의가 아니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구체적 사랑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세상은 점점 모두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헐뜯는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모두가 저마다 자신만이 옳다고 믿고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한갓 불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행이다. 우리는 지금 그 불행의 늪에 빠져 있다. 너무나 오랫동안 정의를 갈구하다가 그 정의를 태어나게 한 사랑의 샘이 마를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공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셋째, 종교다원화 사회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고수하면서 한국교회 정통교단들과 적극적인 교류와 연합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넷째, 소외된 이웃과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약자층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의 길입니다. 일본 막부의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교회 목회자와 선교사의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인의 한계치를 넘는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매고 가는 짐이 오히려 그들보다 가볍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음적 신앙과 복음적 삶으로의 회복을 실제적으로 정리하여 ‘고신교회 성도들이 지킬 다섯 가지 신앙생활의 수칙, The five practices of Christian life as Kosin believers’를 제안했는데, 실천을 다짐하며 제창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규모 있는 경건생활과 건강한 교회생활에 힘쓴다(히 4:15, 7:26, 딤후 3:1, 롬 14:17, 시 16:11, 43:4).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정예배, 야곱의 식탁으로 신앙의 명가를 세운다(마 28:19-20, 히 11:31). 교회에서는 복음전도와 사회봉사,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총회적으로는 총회 본부 열 개 부서와 학

교법인 세 기관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한다(왕상 3:6;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세상적으로는 남북의 평화통일과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해 헌신한다(시 40:10-11, 시 43:3, 고전 9:18-19, 24-27). 목사님들께서는 설교의 스펙트럼을 넓혀 고신성도들의 사명을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복음의 길은 이 시대 고신교회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길입니다(경산 사랑이꽃피는교회의 표어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우는 교회'). 우리 3세대가 걷는 이 복음의 길은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길을 우리 3세대가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따뜻하게 동행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합니다(에 5:21). 각자 받은 은사대로 신랄한 선지자로서 이런저런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착한 제사장으로서 좋은 인생, A Good Life를 삽시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빌 3:13-14). 할렐루야!

# 한국장로교회와 고신의 전통

이상규 교수 (고신대학교)

## 서론적 고찰

어떤 시대의 교회 혹은 교회의 역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평가의 규범<sup>(norm)</sup>은 그 시대의 교회가 얼마만큼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해 왔는가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책임을 부여 받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의 규범은 그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왔는가에 기초한다. 어떤 시대의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받아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 곧 말씀을 지키며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은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고난이다. 또 교회가 비록 사회로부터 비난과 멸시를 받아도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 가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고난이다. 그 시대의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해 왔는가 하는 점은 교회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고신교회(단)은 1952년에 총노회를 조직하여 한국에서의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56년에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교단) 총회를 조직하였고, 총회 조직을 기념하여 해외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의해 1958년 5월에는 김영진 목사를 대만에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고신 교회는 주로 부산경남지방에 산재해 있었

으나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1,811여 개처의 교회 48만여 명 신자를 가진 교단으로 성장하였고, 36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고신대학교와 신학대학원, 복음병원 등의 기관과 ‘기독교보’(주간 신문), ‘생명나무’(월간) 등을 발간하고 있다.

## 1. 기독교의 전래와 일제하의 교회

한국과 기독교와의 접촉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개신교회와의 첫 접촉은 1832년 내한하였던 칼 귀츨라프(Karl Gutzlaff)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만주를 징검다리로서 서구 교회와의 간헐적인 접촉이 계속되었다. 한국에서의 기독교 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1876년의 개항(開港)이었다. 개항은 선교사들의 내한을 가능하게 해주었는데, 1884년 알렌의 내한과 이듬해의 언더우드, 헤론 등이 내한함으로써 미국 북장로교회의 한국선교가 시작되었다. 1889년에는 호주 장로교 선교사 데이비스(J. H. Davies)가 내한함으로써 호주교회의 한국선교가 시작되었고,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회가, 1898년에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각각 한국선교를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온 4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장로교회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네 선교부는 각기 분담된 지역에서 활동했으나 연합하여 1907년 대한 예수교장로회 독노회(獨老會)를 구성하였다. 독노회를 구성할 당시 장로교회는 전국적으로 785개, 세례교인은 1만 8천여 명, 전체교인은 7만 2천 명에 달했다. 한국인 장로는 47명으로 알려져 있다. 노회가 조직되자 그 해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한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양전백, 이기풍, 한석진 등 7인에게 목사안수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 ‘12개 신조’는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되었다. 노회가 조직된 지 5년 후인 1912년에는 7개 노회를 중심으로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구성하였다. 이 당시 한국인 장로교 목사는 52명이었고, 장로는 125명에 달했다.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 한지 불과 25년이 못되어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점하였고, 한국기독교는 일제의 식민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탄압이 1935년부터 시작된 신사참배(神社參拜) 강요였다. 신사참배 반대로 2천명이 투옥되었고, 주기철, 최상림, 이현숙 등 40여 명은 옥중에서 순교하였다. 해방 후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20여 명의 신사참배 거부자들은 광복과 함께 출옥하였다. 그들 중 주남선 목사, 한상동 목사, 손명복 전도사, 이인재 전도사, 그리고 조수옥 권사 등이 고신교단 형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신학적으로 볼 때 1930년대는 변화의 시기였다. 이 때 대두된 진보적 신학은 신사참배 문제와 함께 한국교회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였다. 적어도 1930년대 이전에 내한한 초기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복음주의적인 혹은 보수적인 선교사들이었다. 그러나 주로 캐나다 선교부를 통해 파종된 ‘다른 전통’은 1930년대부터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934, 35년 장로교 총회에서는 한국교회사상 처음으로 ‘신학적’ 문제로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진보적 신학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40년대에 와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보수적인 입장의 신학운동이 퇴조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그 지경을 넓혀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현은 후일 한국장로교회의 변화와 분열을 가져왔다.

## 2. 해방과 교회재건운동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다. 해방된 조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제하에서 범한 신앙적, 민족적 범과를 청산하고 교회재건, 곧 영적 쇄신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 가는 일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데 실패하였다. 친일 인사들은 신속한 변신을 통해 교권을 장악하였고, 교회재건을 위한 노력은 친일 전력을 지닌 교권주의자들의 저항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했고, 그 이후의 한국교회에 적지 않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결과가 대립과 교회 분열이었다.

해방 후 북한에서 교회의 재건과 쇄신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전개되었으

나 공산정권에 의해 좌절되었고, 기독교회는 다시 탄압을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침묵의 교회로 남아 있다. 서울에서도 교회재건이 시작되었으나 그것은 교회의 기구적 재건에 지나지 않았다. 즉 장로교 인사들은 1946년 6월 서울 승동교회에 모여 대한 예수교장로회 남부총회(南部總會)를 재조직하고 배은희(裴恩希) 목사를 회장으로, 함태영(咸台永)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의 재건은, 치리회의 조직,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한국교회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교회쇄신운동은 부산 경남지역, 곧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즉 주남선, 한상동 등 출옥 인사들은 회개와 자숙을 요구하고 진정한 교회 쇄신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김길창(金吉昌), 권남선(權南善) 목사 등의 저항과 그들의 노회 주도권 장악 기도에 의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들 친일적 인사들은 교권 장악을 통해 기득권을 확보하고, 1949년 3월 8일 부산 향서교회 담에서 기존의 교회조직을 이탈하여 또 하나의 경남노회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장로교회 분열의 시작이었다.

### 3. 고신교단의 형성

#### 고려신학교의 설립

신사참배 반대로 일제치하에서 투옥되었던 주남선, 한상동 두 목사는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한국 교회재건과 신학교 재건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참다운 신학교육 없이는 한국교회를 재건할 수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석방된 이들은 이 구상에 따라 1946년 5월 신학교 설립을 위한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6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2개월간 진해에서 제1회 신학강좌를 개설하였다. 이 강좌가 고려신학교 개교로 이어지는 신학교육의 시작이었다. 고려신학교가 정식 개교된 때는 1946년 9월 20일이었다. 박형룡과 박윤선은 교수로 초빙되었다. 고려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이 목표였을 뿐 만 아니라 해방 후 교회재건운동과 영적 쇄신운동의 동력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모인 인사들이 고신교단 형성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 학교는 고신교단 형성의 신학적 혹은 이념적 모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경남노회의 분열과 총회로부터의 단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방 후 경남지방에서는 교회재건을 주장하는 인사들(주로 출옥한 신사불참배론자들)과 신속한 변신을 통해 교회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자들(주로 친일전력의 교권주의자들) 사이에 대립이 있었다. 전자는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바른 신학의 확립, 회개와 자숙을 통한 교회 쇄신을 주장하였으나 후자는 교회재건 원칙을 거부하고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했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별도의 경남노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장로교 총회는 경남노회의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총회는 김길창 목사가 임의로 조직한 경남노회를 지지했고, 결국 고려신학교 중심의 경남노회(이를 '법통노회'라고 했다) 대표들을 총회에서 축출하는 오류를 범했다.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반민특위(反民特委)가 와해되고 결국 민족정기를 바로잡지 못했듯이 한국교계에도 친일적 교권주의자들이 자숙하지 않고 교권을 장악함으로써 신앙 정기가 서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쇄신운동은 도리어 탄압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고신교단이라는 별도의 치리회 조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 고신교회(단)의 조직

1951년 5월 피난지 부산의 중앙교회에서 모인 총회에서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남법통노회 인사들은 부당하게 축출되었다. 총회에서 축출된 이들은 별도의 조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1952년 9월 11일 진주 성남교회 당에서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노회(總老會)를 조직하였다. 이때 발표된 총로회 설립 취지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취지: 현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본 장로회 정신을 떠나서 이(異) 교파적으로 흐름으로 이를 바로 잡아 참된 예수교 장로회 총회로 계승하기 위하여 총로회를



조직함.

- 목적 : 전통적인 대한 예수교장로회 정신을 지지하는 전국교회를 규합하여 통괄하며 개혁주의 신앙운동을 하여 법통노회를 장차 계승기로 함.

이것이 고신교단의 출발이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회장 이약신(李約信) 목사, 부회장 한상동 목사, 서기 홍순탁 목사, 회록서기 오병세 목사, 부서기 윤봉기 목사, 회계 주영문 장로 등이었다. 이 당시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는 320여개 교회였고 이중 90%정도가 부산·경남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다.

총로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범한 신사참배의 죄를 자백하고 자숙하기 위한 3주간의 특별집회를 갖기로 결의하였다. 3주간의 자숙의 기간을 보내고 1952년 10월 16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노회’ 발회(發會)를 공식 선포하였다. 총노회가 조직될 당시는 경남지역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타 지역으로도 교세가 확장되었다. 1956년까지는 여섯 개 노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해 9월 20일에는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고신)가 조직되었다. 이 당시 교단에 속한 교회는 568개 처, 목사는 111명, 전도사 252명, 장로 157명, 세례교인수는 15,350명으로 보고되었다. 총로회를 조직한 교회는 이를 기념하여 대만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결과로 1958년 5월 김영진(金榮進) 목사를 대만에 정식 파송하였다. 이것이 고신교회(단) 선교의 시작이었다. 고신교단은 단순히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신앙적 유산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과 개혁주의 교회건설, 그리고 개인생활의 순결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교단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총회를 조직한 지 4년이 지난 1960년 12월 13일에는 (1959년 연동측과 분리된) 승동측과 합동하여 ‘합동교단’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두 교회 간의 ‘합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양측의 견해차가 노정되었고, 특히 합동으로 고려신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한상동 목사는 고려신학교 복교를 선언했다. 양 교단은 합동할 당시 신학교는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려신학교는 서울에 있는 총회신학교의 부산분교로 운영하기로 하되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으므로 곧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고려신학교에 애정을 가졌던 한상동 목사는 고려신학교의 환원을 선언하여, 고신은

승동측과의 합동 이전으로의 환원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1963년 고신으로 환원하였다. 승동측과 합동 당시의 고신총회에 속한 교회수는 590여개였고, 세례교인수는 17,500명이었으나, 환원총회를 구성했을 때 교회수는 445개 교회였고 세례교인수는 10,200명에 불과했다.

환원 이후 고려신학교와 이사, 그리고 교수단 내부에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의 인가’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고, 특히 복음병원을 둘러싼 대립도 없지 않았다. 1970년대 초에는 부산노회(한상동)와 경남노회(송상석) 간의 대립은 교단의 분열로 이어졌고, 불신법정 소송논쟁을 불러왔다. 경기노회와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일단의 인사들은 1975년 반고소론(反告訴論)을 명분으로 분립하였다. 1982년에는 석원대 중심의 경기노회측을 제외한 경남노회측은 다시 본류로 복귀하였다.

1952년 출발한 고신교회는 여러 시련이 있었으나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개혁신의 신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신교회(단)가 설립된 지 62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건실한 장로교회로서 1,811여 지역교회와 48만의 성도를 가진 교회로 발전하였다.

#### 4. 고신교회(단)의 신학적 배경

고신교회의 신학전통 혹은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단형성 과정 속에 다소 언급되었지만 이를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 (개혁주의 신학)**

신학은 신앙적 삶과 교회적 생활을 결정해 주는 것이므로 개인이나 단체의 신학이 어떠하나 하는 점은 그 개인과 단체의 삶과 신앙, 교회적 생활을 결정해 준다. 한국교회는 1930년대를 경과해 가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그 결과 신사참배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해방 이후 고려신학교 설립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하여 개혁주의 신학을 확립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즉 바른 신학운동이자 바

른 생활과 바른 교회를 세우려는 근본 동기를 지니고 있었다.

### **둘째,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통한 생활의 순결 (개혁주의적 생활)**

일제하에서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려는 싸움이였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투옥 되었으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였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신앙의 정절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려는 거룩한 투쟁이었고 바른 생활을 위한 경건한 투쟁이였다. 고신교회는 교리만 강조하지 않고 바른 삶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 바른 삶이란 건실한 교리적 기초 위에서 순결과 거룩을 추구하고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 **셋째, 회개와 자숙을 통한 교회 재건(쇄신) 운동 (개혁주의 교회건설)**

해방 후 교회정화와 영적 쇄신운동, 곧 교회 재건운동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한 운동이였다. 이것은 또한 교회 개혁운동이였다. 고신교회는 해방 이후 건물이나 조직 등 외형적 재건만을 추구하지 않고, 내면적 갱신과 쇄신을 지향해 왔다. 일제하에서의 상황, 곧 자유주의 신학의 유입, 배교적인 신사참배를 생각해 볼 때 해방 이후의 교회의 정화와 영적 쇄신은 긴박한 과제였다.

그래서 한상동, 주남선 등은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 생활의 순결, 교회쇄신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념이나 전통의 문제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그 집단이나 공동체의 이념이 무엇이었나 하는 점과, 둘째로는 그 이념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점이다. 고신의 이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이념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 점은 반성해야할 점이기도 하다.

고신교회(단)도 여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타의 교회조직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고 문제를 노출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고신교단은 특수하다든가 다른 교단 보다 완전하다는 등의 생각은 옳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Divine institution)이지만 사람들로 구성되는 공동체(Human constitution)이라는 점에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우

리도 동일한 오류를 범했고, 또 범할 수 있는 죄성을 지닌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늘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겸허한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 5. 고신교회와 개혁주의 신학

앞에서 고신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한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혁주의는 루터주의보다 더 철저한 성경중심적 신학을 말하는데, 미국 칼빈신학교 교수였던 클로스터(Fred Klooster)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이란 바로 '성경적 원리'라고 말한바 있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기초하여 신관과 우주관,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한다.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 변혁적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 교회정치제도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의 위계제도나 특권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나 교권주의를 배격한다.

이 개혁주의 신학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신학,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중심 신학, 교회적 삶을 강조하는 교회중심의 신학으로 설명되어 왔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개혁주의적인 신앙과 삶의 방식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 중심(God-centered)이란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으로서, 신학의 중심 주제는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곧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으로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을 알고 그를 신뢰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16세기적 상황에서 말하면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 말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개혁주의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을 엄격하게 구별하며, 인간을 특

수한 위치에 두는 신학을 용납하지 않는다. 개혁주의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과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다.

성경 중심(Bible-centered)이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란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이기도 한 ‘오직 성경’(sola scriptura), 곧 성경 외의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신학의 원천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 66권 외에도 7권의 ‘외경’(로마 가톨릭은 외경을 ‘제2의 경전’이라고 부른다)과 성전(聖傳)이라고 부르는 ‘전통’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받아드린다. 때로는 ‘전통’을 통해 성경을 해석한다 하여 ‘전통’을 성경 보다 우월한 권위로 받아드렸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모든 ‘외경’과 ‘전통’을 배격했다. 개혁주의는 성경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거나 감하는 것을 반대하는 ‘오직 성경’과 함께 66권의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든 성경’(tota scriptura)을 강조한다. 또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해석한다.”(Scripturae scriptura interpretum)는 원리를 고수한다. 루터나 칼빈 등 개혁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이 옳다는 점을 성경에 호소하였다. 개혁주의는 바로 성경중심주의 신학이다. 따라서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강조한다.

개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였고, 하나님의 교회건설이었다. 이것이 교회중심(Church-centered) 사상이다. 신학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위한 학문이며,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을 강조한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견적 교회 안에서 실현된다고 하여 가견적 교회와 신국(神國)을 동일시하지만,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오직 선택된 자들로 구성되는 우주적인 교회, 곧 무형교회 혹은 불가견적 교회(invisible church)를 말하면서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회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상의 교회, 곧 유형교회 혹은 가견적 교회(visible church)로 구분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개혁주의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을 인정하면서도 완전을 향한 추구를 경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교회 갱신 혹은 교회 개혁운동이다. 교회중심사상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적 삶을 추구하며,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힘쓴다.

개혁주의는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신학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conform)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transform) 문화적 소명을 지니고 있음을 고백한다. 신자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고신교회는 이런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THE KOSIN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5 (반포동) 고신총회회관